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에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

김혜원·백화정

Boston University · University of Houston

신체 만족도에 대한 남녀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826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 만족도와, 성형수술 고려여부, 그리고 이성친구의 조건 등을 조사하였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체중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체중, 이성에 매력적으로 보일 체중 등의 비교와 BIAQ, GFFS 등의 척도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큰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은 대다수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남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유에서는 남녀 모두 보다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원하고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의 경우, 수술의 부작용, 수술실패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에 반해, 남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이성 친구의 조건으로는 남녀 학생 모두 성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이성친구의 조건으로 외모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외모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강하게 받아들인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논의가 되었다.

서론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는 점차 신체적 미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시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를 꾸미는 데에 많은 정신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는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실제적, 심리적 위상을 결정하는데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와 개인 몸의 함수 관계는 두 성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듯하다. 즉, 상식적인 관찰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예쁘다”는 것에 대해 보다 예민한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맞물려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더욱 민감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하게 보이는 미에 대한 예민성은, 여성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한 결과라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남녀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하여 실증적 증거를 얻고자 한다.

1. 사회, 역사적으로 규정지어진 미

여성들이 날씬함을 미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서구 문명화와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화에 나타나는 여인상이나 한 시대의 대표적인 미인으로 불리던 몇몇 여배우들을 놓고 볼 때, 1960년대 이전에는 보다 둥글고 풍만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말의 르노와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이나 1950년대를 풍미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1960년대의 마릴린 먼로 등을 놓고 볼 때에도 그 당시의 미인상이 요즈음 추구되는 굴곡없이 마른 체형과는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 여성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인대회 우승자들, 영화 배우들, 모델들, 그리고 심지어는 백화점의 마케팅도 점차 더욱 날씬해져 가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들의 체중도 이상적인 표준체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Maxmen & Ward, 1995). 이렇듯,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처해 있는 사회, 장소, 시대 등을 반영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도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미인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에서 마른 체형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

물질이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마른 체형은 최대의 미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Glamour 잡지의 독자 3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Wooley & Wooley, 1984), 체중 감소, 직장에서의 성공, 멋진 남성과의 데이트, 옛친구로부터의 소식중 무엇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42%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체중 감소를 꼽았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

른 체형의 선호는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여대생 36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영미와 이 기완 (199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의 신장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데 비해 체중은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마른 형태의 체격으로 변화되어 감을 보여준다.

2.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압력

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변해 가는 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 개인의 미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性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연구 결과와 현상들은 우리의 사회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미 추구”의 의무 조항을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적합 활동, 특성들이 달리 규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성적합 특성 (gender-appropriate characteristics) 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메시지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사회 문화적 요인들 중 현대 여성의 이상적 (ideal) 체형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요인들로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여성들의 미 겨루기 대회 (미인대회)를 들 수 있다.

먼저,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특정 사회집단의 (특히, 권력 집단의) 선호가 특정한 외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내에서는 남성의 시각이 곧 여성의 외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논의는, 여성 신체가 남성의 욕망에 종속되어 왔다는 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즉 가부장적 사회제도 내에서 여성의 신체가 첫째, 여성 본인의 것이 아닌 그가 속한 남성의

지위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둘째, 남성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음 (Silverman, 1994)이 지적되어 왔다. Rabine (1994)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성의 신체가 가부장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신체에 가해지는 가부장적 사회의 압력은 여성들의 취업에서 신체적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4년 여성 단체와 전교조는 여자 상업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추천 의뢰서에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한한 44개의 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기업들의 채용 요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여성 응시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예: 즈은행 승장기 안내원 - 신장 162에서 167cm, 체중 50kg 이하, 시력 1.0이상; ○의류 - 신장 160cm 이상, 용모 단정; ㄱ유통 - 신장 155cm 이상, 용모 단정, 안경착용불가).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고발된 44개의 기업 중 27개 업체: 61.4%)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김엘림, 1994). 즉, 이제는 160cm 이상, 50kg이하라는 수치가 현대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 혹은 제한하는 구체적 신체 사이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의 기준 적용의 영향력은 공채의 비율보다 학교 추천 등의 비공개 채용이 압도적인(정양희, 1994)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경우 더욱 위력적이다. 정 양희(1994)에 따르면 고졸 여성 채용 방식의 50%에 달하는 학교 추천 방식은 '학교 추천 - 가면접 - 서류 전형 - 본 면접 - 신체검사 - 채용 결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학

교 추천과 인사 담당자들이 학교에 와서 미리 하는 가면접의 단계에선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외모에 대한 심사가 행해진다. 예를 들어, 본교의 취업률을 의식하는 학교측에서는 기업이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많은 경우 성적순이 아닌 미모순의 해당 인원을 추천하는 것이다(이제진, 1994). 또한, 기업에서 요구한(공식적이든 혹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학교는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좌, 미용수술 권유, 여성스러운 몸가짐의 훈련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이제진, 1994).

이상의 용모에 따른 고용 차별을 다룰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조 해정(1994)이 그녀의 글에서 주장하듯이 키 크고 예쁜 여자라는 혹은 원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하는 것이다. 1994년 현재, 한국 여성의 평균키는 158cm, 몸무게는 53kg (김엘림, 1994)라는 통계를 볼 때 '160. 50'이라는 기업의 기준은 다수의 여성들을 무시한 소수의 여성, 즉 남성들의 눈에 보기 좋은 소수의 관상용 여성을 위해 정해진 것이라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두 번째로, 방송 매체가 내용, 양, 가치 부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광고는 소비자를 동기 유발케 하는 판매 전략으로써 그 사회의 가치 혹은 태도를 광고의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시킨다. 이에 대해 한 은경(1995)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판매 전략 속에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째는 특정 여성의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상품의 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 특성들을 지각케 만드는 판매 전략이다. 그 대표적 예는 향수에 대한 광고이다. 대부분의 향수 광고는 호화롭고 섹시한 여성 모델을 등장시

킴으로써, 그들의 젊음, 호화로움, 섹시함을 자신들 향수의 속성으로 연결, 지각케 만든다. 두 번째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제품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의 가는 허리를 연상케 함으로써(“비너스 스칼렛 거들”),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신들의 제품 구입시 그 ‘이상적으로’ 제시되는 여성의 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광고는 여성의 신체의 부분 부분을 소비의 영역으로 나누고 해부한다. 즉, 얼굴, 가슴, 허리,臀, 다리는 (남성의 그것들과는 다르게)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고 따라서 이 부분들은 각각이 훌륭한 소비자이다.

기본적으로 광고의 목적은 보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최대한의 불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광고 속에서 제시되는 특정 물건이나 형상을 지니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적정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공포감”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공포감은 집요하게 여성의 신체 각 부분을 겨냥하여 더욱 부추겨진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미의 기준을 배우게 되고, 그 목표 지점은 바르고, 입고, 조이고, 울림으로써만 (모두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 성취될 수 있는 높은 고지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의 광고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면, 스토리 라인이 있는 매체(TV 드라마, 영화, 연극 등)는 그러한 여성의 미에 대한 이미지를 삶의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어 표현하는 힘을 갖는다. 기승전결 혹은 도입 결말의 이야기 구성 속에서 많은 스토리 매체들은 미를 지닌 여성이 이 사회 내에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자세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물론 남, 여주인공 모두) 주인공이

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그에 상응하는 일정 수준의 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젊음과 미모를 갖추지 않은 여성은 이야기의 외곽에 머물거나(예: 가정부, 상인) 혹은 이야기 흐름에 중요하지 않은 웃음을 제공하는 자로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구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른들의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선과 악을 보다 뚜렷하게 구분 지어 제시하는 이들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선한 인물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혹은 그 소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중 여성 악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대개 일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대부분이 높고 뚱뚱하며(예: 콩쥐의 계모, 신데렐라의 계모, 인어공주의 우르술라), 늙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미와는 거리가 있는 여자들이다(예: 팔쥐, 신데렐라의 언니들). 이와 같은 인물 제시는 여성의 미에 대한 분명한 ‘후광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여성이 자동적으로 좋은 품성을 지닐 거라는 추론을 내리게 한다.

또한 중시되어야 할 점은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미를 지닌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맞게 되는 결말이다. 이제는 신화가 된 ‘신데렐라’의 부귀영화는 아직도 심심지 않게 현대 영화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미와 권력의 인과관계를 보여준 영화 ‘신사는 미녀를 좋아한다’와 미모를 통한 신분 상승을 그린 ‘프리티 우먼’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비록 그것이 ‘허구’라는 인식 하에서 그 결말을 접하게 되지만, 여성의 미가 사회 내에서 일정한 이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즉, 이러한 기승전결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미란 하나의 ‘생존 전략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나 스토리 매체에 제시되는 미의 기준을 관람하던 단계를 뛰어넘어, 현대의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를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인대회이다. 제 1회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1957년)를 필두로 시작된 미인대회는 정확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져, 현재 80여 개에 육박하고 있다 (한겨레 21, 1996). 또한 어렵잡아 연간 300회 이상의 미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각 대회에서 수상을 한 미녀들은 (진, 선, 미, 포토제닉상 등) 1800여명에 달해, ‘공인 받은 미인’들이 하루에 5명 꼴로 탄생(뉴스플러스, 1996)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스코리아 대회의 취지가 보여주듯 “한국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북돋우고 미를 통한 국제사회 참여와 문화 교류”(한겨레 21, 1996)가 그 기본적 목적이라면, 미인대회는 그 관계 담당자들의 설명처럼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에 와서 ‘유별나게’ 문제삼아져야 할 이유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종 미인대회가 이런 멋진 구호 하에서 그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미 꾸미기만을 강요하고 있는지가 명확해 진다.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인대회에서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너스 상이라고 한다 (가슴 둘레 37인치, 허리 27인치, 윗 38인치, 한겨레 21, 1996). 물론 신체적 조건 외의 기준(교양, 매너, 사교성 등)도 심사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사회자의 짧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진다. 반면, 신체에 대한 심사는 세세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은 크게 4개의 항목(얼굴 전체, 목 어깨 팔 가슴, 하체, 전체 피부)으

로 나뉘어 지고 각 항목은 다시 상세히 세분되어 총 26개의 신체 부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미인대회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물건일 때와 같은 기준들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육체만을 재단하듯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인대회의 문제점은 여성을 대상화, 물화시킨다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의 대중매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인대회에서 양산되는 미녀들은 일반 여성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미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 기준의 당위성과 영향력은 그러한 기준을 갖춘 여성들이 일약 신데렐라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미인대회 수상자들이 재계의 핵심가(家)와 연분을 맺는 보도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고, 특히 1987년 미스코리아들의 연예 활동 제한이 폐지된 이후 미인대회에서의 수상자들은 거의 모두 돈과 출세가 보장되는 연예인으로 부상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대중매체에서 표현된 미를 통한 신분 상승이 더 이상 가상적인 일만은 아님을 대중에게 인식시켜 준다. 더 이상 신데렐라는 나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공주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의 응모자들이 수많은 미인대회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여성들이 미스코리아에 참가하며, 1996년 수퍼엘리트모델대회는 수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임, 한겨레 21, 1996).

3. 美를 위한 인위적 노력: 성별 차이

위에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여건들이 보다 폭넓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 기저에는 발달 과정을 통한 아동들의 사회화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의

압력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는데 4세 아이들에서조차 비만한 체형에 대해 전형적 혐오(stereotypic dislike)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Staffieri, 1967). Brylinsky (1990)에 따르면, 사고 능력의 성숙에 따라 한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던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신체적 한계 등이 점차 추상적이고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사회적 규준과 경험의 자아상의 발달을 주도하게 된다고 한다 (Brylinsky, 1990).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몸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Freedman (1984)은 그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자는 몸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보다 기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여자는 몸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믿게 된다고 밝힌다. 또한, 그러한 사회화의 결과로써 소녀들은 부정적 신체 이미지, 낮은 자존감, 성취 갈등 등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사회적 압력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다른 정도의 만족도를 갖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의 미가 공개적인 경쟁의 대상이 되고 남성에 비해 보다 까다롭고 강한 미 추구에 대한 압력이 주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이 그들의 신체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첫째, 자신의 신체적 미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신체상(Body Image)을 낳게 하며, 둘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등의 인위적 노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이 더욱 많다고 한다 (Mintz & Betz, 1986; Calden, Lundy, & Schlafer, 1959). 또한 여자와 남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들의 불만이 자신을 체중 미달이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인 데에 반해 여자들의 불만은 자신을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데에서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Mintz & Betz, 1986). Fallon과 Rozin(1985)의 연구에서도 신체 만족도의 성차가 밝혀진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수 백 명의 남녀 대학생들은 일직선상에 제시된 마른 체형에서 뚱뚱한 체형의 다양한 사람의 모습(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그림들)을 보았다. 그 그림을 보고 응답자들은 3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모습을 선택하였는데, 첫째는 현재의 자신의 몸과 가장 비슷한 모습, 둘째, 이상적인 모습, 마지막으로 다른 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모습이다. 이 결과, 남녀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학생들은 3가지 체형이 거의 일치하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체형이 이상적, 매력적 체형 보다 뚱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 결과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이상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으나,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정도의 불만족이 밝혀진 바 있다. 울산 의대 중앙 병원과 숙명 여대의 연구팀(박혜순, 송정자, 이현옥, 1996)은 서울시와 서울 근교의 여대생 469명(평균 연령 21.1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높은 신체 불만족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자 (평균신장=161.4cm, 평균체중=52.5kg)중에서 96.4%는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96.2%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체질량 지수(체중÷신장(m)²: 지수 20kg/m²이하면 저체중군으로 분류됨)에 따르면 이들 집단은 이미 매우 여윈 상태 (평균 지수=20.2kg/m²)임에도 불구하고, 신장 165.8cm, 체중 48.2kg을 이상적으로 원해 (체질량 지수

=17.5kg/m²) 극도의 야윈 몸매를 소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완, 수정시키는 인위적 노력을 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이 동기는 우선 다이어트라는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현상인가는 한국인의 보건 의식 행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시사저널 1996에서 재인용)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7월부터 1995년 7월까지의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4분의 1이 원하는 몸무게를 갖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영미, 이 기완 (1994)의 연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88%가 체중 조절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 혜순 등의 연구 (1996)에서도 대상 여대생의 57.4%는 실제로 살을 빼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체중군 (체질량지수 20kg/m²이하)의 20-25세 사이의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일기획의 조사 (시사저널, 1996 재인용)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85%가 한 번 이상의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이제 다이어트는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를 사로잡는 신홍 종교요, 젊은 여성들은 그 종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신도들(시사저널, 1996, 7, p.39)”임을 보여준다.

한편,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다이어트 현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들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몇몇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Canada Fitness

survey (1981)에 따르면 남성들은 건강을 목적으로 fitness를 하는 데에 반해 여자들은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즉 남자들의 31%가 건강과 관련하여 fitness를 하는 반면 여자들의 경우 50%가 넘는 수가 체중 감소를 위한 fitness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맥락에서, 정 옥임(1993)은 그의 연구에서 여대생 집단이 보이는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괴리를 밝히고, 여대생들이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충실한 건강보다 마른 체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 이들 집단의 자기 가치관이 주로 몸매와 외모 또는 몸무게를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식사를 통해 체중을 조절(대부분 줄이는)하는 다이어트와 달리, 신체의 일부를 의료적으로 깎고, 붙이고, 높이고, 맞추는 성형 수술은 또 하나의 인위적 노력의 큰 장르이다. 본래 성형수술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야기된 피부와 근 혹은 골격 조직의 결손과 그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외과의 한 분야이다 (강진성, 1995). 그러나, 이런 취지와 함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형수술 = 미용수술’이라는 도식을 형성하고, 결손이나 변형이 없는 경우에도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형수술에의 희망 정도나 실제 시술 경험에 대한 현황은 다이어트의 실천 정도와 비교할 때 체계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최근 남성들도 미에 대한 사회의 “예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고 이로 인해 남성들의 성형수술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으나(KBS 9시 뉴스, 1996, 10, 17), 다이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을 통한 인위적 미추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여자와 남자에게 기대되는 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르고, 이에 따라 미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자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는 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남녀에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론적 논의에 그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압력의 결과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어떤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여자와 남자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또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1.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신체상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 1) 여학생과 남학생 두 집단 각각에서 현재의 체중과 표준적 기준 (표준체중)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
 - 2) 여학생과 남학생 두 집단 각각에서 현재 체중, 자신이 원하는 체중, 그리고 이성 매력적으로 볼 체중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BIAQ의 반응에서 남녀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 4) GFFS의 반응에서 남녀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인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심은 남녀 학생들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3. 대학생 집단에서 중요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성 친구의 조건은 남녀 학생들에서 어떻게 규정지어지는가?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서울과 서울 근교의 4개 대학 남학생과 여학생, 총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는 1996년 9월 27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기간동안 심리학 개론을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과 타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1. 학교별 조사대상 학생들의 구성

학교	여학생	남학생	총
A대	404	0	404
B대	65	167	232
C대	0	105	105
D대	0	85	85
총	469	357	826

2. 검사도구

1) 신장과 체중

남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장과 체중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체중에 대해서는 Fallon과 Rozin (1985)에서와 마찬가지로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이 주어졌는데, 현재 자신의 몸무게, 자신이 이상적으로 갖고 싶은 몸무게 (이상적 체중), 이성의 친구가 바

라보았을 때 매력적이라고 여길 정도의 몸무게 (매력적 체중)에 대해서였다.

2) BIAQ (Body Image Avoidance Questionnaire)

BIAQ 는 신체 이미지 불만족과 관련된 행동 경향을 재기 위해 Rosen 등 (1991) 에 의해 개발된 질문지로서 19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1). Rosen 등 (1991) 의 연구에서 BIAQ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onbach's $\alpha = .89$; 재검사 신뢰도는 $r=.87$). Rosen 등 (1991) 의 연구에서 보고된 타당도는 신체 크기 측정 (body size estimation) 과의 상관은 .22로 낮게 나타났으나, 신체 형태 질문지 (Body Shape Questionnaire) 와의 상관은 .78로, 형태 염려 척도 (Shape Concern Scale)와 체중 염려 척도 (Weight Concern Scale) 과의 상관은 각각 .68과 .63으로 나타났다.

3) GFFS (Goldfarb Fear of Fat Scale)

GFFS는 Goldfarb(1985)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재기 위해 만들어 졌다.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사 장애에 내재한 정서 경험,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체중공포증 등을 짚 수 있다 (부록 2). 또한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진단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Goldfarb 등 (1985) 에 의해 보고된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에서 $\alpha=.85$, 재검사 신뢰도에서 $r=.88$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GFFS는 정상 집단과 거식증 집단간에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울증, 신경증, 부적응, 통제 지향 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 역시 보고되고 있다.

4) 성형수술 희망여부

먼저, 성형 수술을 원하거나 혹은 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되었고, 수술을 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와 수술을 원하는 구체적인 부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을 원하였으나 실제로 행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였다.

5) 이성 친구의 조건

각,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은 자신이 이성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들)을 기입하였고, 이 조건들은 상대방 性的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적 압력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3. 자료 분석

먼저, 뚱뚱해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되었다. 두 번째로, 각 집단에 대해 의학적으로 표준적이라고 규정지어진 표준체중[(신장-100) x (.9)]이 산출되었고, 이것이 현재 자신의 체중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보이고 있는 자신의 현재 체중, 이상적 체중, 매력적으로 보일 체중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학생, 남학생의 3가지 체중이 비교되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갖고 있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뚱뚱해지는데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비교되었다. 위의 비교들을 위해 t-test가 사용되었고, 성형수술과 이성 친구 조건에 대한 응답들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위가 검토되었다.

결 과

1. 몸에 대한 만족도

현재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체중이 얼마나 표준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표2), 현재 여학생들은 표준체중보다 유의하게 적은 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6.59, p<.001$). 또한, 여학생들의 현재 체중과 바라는 이상적 체중간 ($t=22.04, p<.001$), 현재 체중과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제시한 체중간 ($t=14.58, p<.001$), 그리고 이상적 체중과 매력적 체중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13, p<.05$). 이는 여학생들의 현재 체중이 표준체중보다도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원하거나 이성이 매력적으로 본 체중을 현재 체중보다도 더욱 가법게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학생들의 경우에서도, 현재 체중과 표준체중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t=2.74, p<.006$), 남학생들도 표준적인 체중에 못 미치는 마른 체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 체중과 이상적 체중간, 그리고 이상적 체중과 매력적 체중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지각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체중과 매력적 체중간 ($t=2.02, p<.05$)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지각되어, 남학생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보다 체중이 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에 있어 남녀간에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BIAQ 점수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남녀의 반응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t=6.91, p<.001$) 여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높은 불만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학생들에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GFFS의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GFFS 점수에 서 남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지각되었다 ($t=11.69, p<.001$).

표 2. 체중, BIAQ, GFFS의 평균과 표준편차

		여학생	남학생
현재 체중	M	51.40	65.35
	SD	6.13	8.63
이상적 체중	M	47.42	65.88
	SD	3.89	6.56
매력적 체중	M	47.66	66.10
	SD	3.92	6.40
표준체중	M	56.38	66.41
	SD	4.24	4.51
BIAQ	M	42.87	39.79
	SD	6.68	6.12
GFFS	M	20.53	15.67
	SD	6.22	5.30

2. 성형수술의 고려

성형수술의 고려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어 본 결과 (표 3), 남녀 학생들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에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응답한 여학생들의 67%가 성형수술을 원하고 있거나 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18%의 남학생들만이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형수술하고 싶은 부위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된 부위는 남녀 공히 눈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녀 공히 좋은 인상이나 미용을 위해서 등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들의 응답에 비해 여학생들의 응답에서 미용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을 원하고도 하지 못한 이유에서는

남녀간의 응답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여학생들이 부작용 혹은 수술 후의 후유증을 가장 큰 요소로 지적한 데에 반해 남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표 3. 성형수술에 대한 의견

	여학생	남학생
원하는가?		
Yes	252 (67%)	71 (18%)
No	64 (18%)	286 (82%)
원하는 부위*		
눈	87 (29%)	18 (26%)
코	76 (26%)	10 (14%)
얼굴형/턱	62 (21%)	11 (16%)
원하는 이유*		
미용	256 (80%)	28 (62%)
자신감 위해	41 (13%)	8 (18%)
부러워서	9 (3%)	
신체문제	3 (1%)	7 (16%)
안한 이유*		
부작용	105 (38%)	5 (10%)
경제적이유	49 (18%)	17 (33%)
타인반대	34 (12%)	4 (8%)

* 남녀집단에서 공통으로 응답된 다수의 의견만이 제시되었다.

3. 이성 친구의 조건

이성 친구를 사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성격을 가장 많이 얘기하였다. 하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외모를 성격에 못지 않게 중요시한 것에 비해 여학생들에서 남학생들을 볼 때 외모는 소수 의견에 그쳐 있다 (표 4).

표 4. 이성 친구 조건에 대한 의견

	여학생	남학생
성격	86 (66%)	270 (46%)
배경	14 (11%)	5 (1%)
얼굴/외모	9 (7%)	208 (35%)
가치관	7 (5%)	18 (3%)
기타	15 (11%)	91 (15%)

논 의

먼저,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 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자신의 현재체중에 대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은 의학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표준체중에 크게 못 미치는 체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날씬한 본 연구의 여대생들은 보다 적은 몸무게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상적체중과 매력적체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대생들은 이성의 또래 집단들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아줄 것으로 스스로 가정한 몸무게보다도 더욱 적은 몸무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들이 사회의 압력을 엄격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데에서 파생된 결과인 듯하다. 즉, 몸무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킬 보다 “안전한” 체중으로서 이상적체중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도 표준체중에 못 미치는 현재의 체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체중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여학생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즉, 여학생 그룹과는 반대로,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몸무게가 보다 더 많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현재체중과 이상적체중과의 비교에서도 보다 몸무게가 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자신의 현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에 대해 보다 높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남녀 학생들에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Fallon과 Rozin (1985)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된다.

BIAQ의 점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에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학생들의 BIAQ 반응 점수는 남학생들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GFFS를 통해 대학생들이 살찌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를 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집단 모두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보였다. 본 척도를 개발한 Goldfarb(1985)는 자신의 연구 집단들에서 신경성 거식증 (anorexia or bulimia)으로 진단된 그룹은 GFFS에서 평균 30의 점수를, 반복적인 체중조절자 ("repeated dieters")는 23.9의 평균을 보였음을 밝힌다. 반면,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집단은 평균 17.3의 점수를 보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남학생 집단은 뚱뚱해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낮은 정도의 두려움 혹은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정도로 뚱뚱해 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여학생들의 GFFS 점수는 선행 연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체중 조절을 하지 않는 집단과 반복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는 집단과의 사이에 해당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위적 노력을 하도록 개인을 이끌 것이다. 대표적인 인위적 노력으로 성형수술에의 희망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과거에 성형수술을 원했거나 현재 원하고 있는데 반해 대다

수의 남학생들은 성형수술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집단에게 고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남녀 공통으로 눈(쌍꺼풀 수술, 눈두덩의 지방 제거)을 꼽고 있었다. 이는 눈이 가장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형수술의 부위라는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고 이는 가장 손쉽고싼 값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는 경제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미용"의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두 집단이 모두 이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나 보다 높은 비율의 여학생들이 미용을 성형수술을 원하는 첫째 요인으로 꼽았다. 미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특정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다 예뻐지고 싶어서, 혹은 좋은 인상을 만들고 싶어서 등이 그 구체적인 응답들이었다. 남녀 모두의 집단에서 수술을 원하는 두 번째의 이유로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기 위함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신체적인 문제(예: 흉터 제거, 눈을 찌르는 속눈썹 등)로 인해 수술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전체의 범주들 중에서 가장 소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적 어려움이나 수정이 필요한 객관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용적으로 더욱 나아지기 위해 자신의 신체 부분을 수정하기 원함을 시사해 준다.

반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었으나 성형수술을 원했거나 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 학생이라는 지위가 주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그들의 희망 사항과는 다르게 실제로 성형수술을 행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성형수술을 원하였으나 혹은 원하고 있으나 실

제로 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남녀 집단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들은 수술이 가져올 지도 모르는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성형수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데 반해, 남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를 실제로 수술을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이는 물론 여학생 집단도 경제적인 면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 여학생 집단에서 경제적 이유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보다도 외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해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학생들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볼 때, 이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는 성형수술에서의 실제적 부작용이 이들 잠재적 성형수술 집단을 물어 서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성친구의 조건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집단과 남학생집단 모두에서 성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여학생들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외모가 남학생들이 제시한 이성친구의 조건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여학생들에게만 외모가꾸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실재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불만족과 연결된 것으로, 자신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강한 동기가 여학생들의 집단에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여학생들에 가해지는 미의 추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함을 시사해 주는데, 남학생들이 이성친구의 조건으로 외모를 중요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도 여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압력의 구체적 도구들을 밝힐 수는 없었다. 후속연구에서 여성들에게 사회적 압력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의 연구가 행해진다면 여성의 미와 사회적 압력과의 관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강진성 (1995). 최신성형외과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 김혜숙 (1993). 신체 매력이 대인 지각과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46-62.
- 김엘립 (1994). 고용차별에 명드는 교육현장. 사무직 여성 (여름호), 50-54.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 나귀옥 (1984). 교사의 편견 정도와 학생에 관한 정보가 교사의 기대형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순, 송 정자, 이 현옥 (1996). 일부 도시지역 여대생의 신체상과 식행동 및 영양섭취 양상. 미간행자료.
- 시사저널 (1996). 20세기 말 '신흥 종교' 다이어트. 시사저널, 350, 39-47.
- 이경옥 (1987). 학생의 특성과 교사의 기대수준과의 관계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제진 (1994). 상업고 여학생의 취업교육의 현실. 사무직 여성 (여름호), 34-37.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 이영미, 이 기완 (1994).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섭식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2(2), 193-205.
- 임형진 (1984).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의 원인귀속과 기대형성에 관한 연구.

-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정양희 (1994). 모집채용차별의 다양한 스펙트럼. 사무직 여성 (여름호), 62-67.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 조혜정 (1994). 용모제한에 깔린 문화적 전제. 사무직 여성 (여름호), 55-61.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 한겨레21 (1996). 미인대회, 카메라 치위! 한겨레21, 110. 34-37.
- Brylinsky, J. (1990). Concerns and Education Regarding Issues of Weight Control and Female Athletes: Body Image and Female Athlet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New Orleans, LA, March, 1990.
- Calden, G., Lundy, R.M., & Schlafer, R.J. (1959). Sex differences in body concep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3, 276.
- Canada Fitness Survey (1982). Canada's Fitness: Preliminary findings of the 1981 survey. Ottawa, Ont.
- Fallon, A. E. & Rozin, P. (1985).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esirable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102-105.
- Freedman, R. J. (1984).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s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Women & Health, 9, 29-43.
- Maxmen, J. S. & Ward, N. G. (1995). Essential Psychopathology and Its Treatment. NY: Norton.
- Mintz, L., & Betz, N.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3), 185-195.
- Mortenson, G. M., Hoerr, S. L., & Garner, D. H. (1993). Predictors of body satisfac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American Dietry Association, 93(9),
- Rabine, L. W. (1994). A woman's two bodies: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 feminism. In Ferris & Benstock (Eds.), On fashion.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Silverman, K. (1994). Fragments of a fashionable discourse. In Ferris & Benstock (Eds.). On fashion.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Staffieri, J. R. (1967). A study of social stereotype of body image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1-104.
- Wooley, S. C. & Wooley, O. W. (1984, February). Feeling fat in a thin society. Glamour, 198-252.

부록 1

BIAQ (Body Image Avoidance Questionnaire)

다음 각 행동에 대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전혀 않음	그렇지 않음	때때로 그러함	언제나 그러함
1. 나는 험렁한 옷들을 입는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옷들을 입는다.	1	2	3	4 5
3. 나는 진한 색의 옷들을 입는다.	1	2	3	4 5
4. 나는 특별한 류의 옷(예: 뽕뽕해 보이는 옷)들을 입는다.	1	2	3	4 5
5.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을 제한한다.	1	2	3	4 5
6. 나는 단지 과일, 야채, 저 칼로리 음식들만을 먹는다.	1	2	3	4 5
7. 나는 하루 또는 그 이상을 굶는다.	1	2	3	4 5
8. 내가 점검되는 상황의 외출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9. 체중에 관해 얘기하는 모임에는 가지 않는다.	1	2	3	4 5
10. 나보다 날씬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엔 가지 않는다.	1	2	3	4 5
11. 식사를 해야하는 모임엔 가지 않는다.	1	2	3	4 5
12. 내 몸무게를 쟀다.	1	2	3	4 5
13. 나는 비활동적이다.	1	2	3	4 5
14. 거울에 나 자신을 비취본다.	1	2	3	4 5
15. (타인과의) 신체적 친밀을 피한다.	1	2	3	4 5
16. 내 체중이 드러나지 않는 옷들을 입는다.	1	2	3	4 5
17. 옷을 사러 쇼핑하지 않는다.	1	2	3	4 5
18. 드러나는 옷(예: 반바지, 목욕가운, tank top)들을 입지 않는다.	1	2	3	4 5
19. 나는 정장을 하고 치장을 한다.	1	2	3	4 5

부록 2

GFFS(Goldfarb Fear of Fat Scale)

아래의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 1 = 절대 사실이 아님 3 = 약간 사실임
2 = 거의 사실이 아님 4 = 매우 사실임

- _____ 1.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뽕뽕해 지는 것이다.
_____ 2. 약간만 체중이 늘어도 나는 두렵다.
_____ 3. 나는 내가 언젠가는 지나치게 뽕뽕해 질 위험이 있다고 믿는다.
_____ 4. 뽕뽕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_____ 5. 뽕뽕해 지는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다.
_____ 6. 내가 몸무게에 주의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으면 나는 매우 뽕뽕해 질 것이다.
_____ 7. 체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은 없다.
_____ 8. 내 모든 에너지가 체중을 조절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기분이다.
_____ 9. 내가 약간만이라도 먹으면 나는 자제력을 잃고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_____ 10. 배고픈 채로 있는 것이, 자제력을 잃고 뽕뽕해 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